

<주먹 쥐고 소림사> SBS 주말 예능 부활 이끈다 13인의 성장 스토리, 재미와 감동으로 시청자 “채널 앞으로!”



SBS 주말 예능 부활의 신호탄이 올랐다.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고 지상파 3사의 토요 예능 격전장으로 뛰어든 <주먹 쥐고 소림사>(연출 이영준, 박미연)는 10월 17일(토) 첫 방송에서 7.8%(닐슨코리아/전국)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앞날의 전망을 밝게 했다. 수도권 시청률은 8.3%까지 올랐고, 2049 시청률도 2.7%를 기록, 젊은 층의 관심을 반영했다. 후반부 멤버들의 기초 체력 테스트에서 온주완이 손가락 푸시업을 할 때는 순간시청률 12.3%까지 치솟기도 했다.

<주먹 쥐고 소림사>는 지난 해 설 특집 파일럿으로 방송된 후 1년 10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더 단단해져서 돌아왔다. 일단 라인업이 화려하다. 남자 편, 여자 편으로 나뉘어 김병만, 육중완, 박철민, 온주완, 김풍, 이정신은 화려한 무술과 파워풀한 동작이 특징인 허난성 북소림사에서, 최정윤, 유이, 구하라, 페이, 하재숙, 임수향, 오정연은 민첩한

손기술과 정제된 무술을 선보이는 복건성 남소림사에서 무림의 고수에 도전한다. 남소림사에는 김병만, 육중완도 참여한다.

도입부 격으로 방송된 첫 회에서 멤버들은 결연한 각오를 밝혔다. 이 나이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 50~60대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50세 박철민,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완주하겠다는 39세 최정윤, 아나운서들은 몸을 사린다는 편견을 깨겠다며 10년간 기른 머리를 싹둑 자르며 투지를 불태운 오정연, 중국인의 자존심을 걸고 열심히 하겠다는 페이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예능을 예능으로만 받아들인 멤버는 없었다.

화면으로 소개된 소림사의 웅장한 모습은 대륙의 스케일을 확인시켜 주며 시청자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주었다. 사부와 사형들의 현란한 무술 시범은 중장년층 시청자들에게 소림 무술에 대한 로망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기도 했다.

수영선수 출신 유이, 무용을 했던 오정연과 페이, 육상돌구하라의 절도 있는 동작은 한 폭의 동양화가 그려지는

듯한 아름다움을 선사했다. 또 50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는 박철민의 유연성과 김병만을 긴장시키는 차세대 에이스 온주완의 스핀지처럼 빠른 무술 흡수력은 기대감을 자아냈다. 초반부터 ‘관심 제자’, 혹은 ‘구멍’으로 분류된 임수향, 하재숙, 이정신, 육중완은 어떤 성장 스토리를 써갈지 궁금증을 주었다.

한편, 10월 17일(토)부터 <오! 마이 베이비>와 <주먹 쥐고 소림사>가 통합돼 <토요일이 좋다>로 방송되었다. <토요일이 좋다>라는 큰 타이틀 아래 두 개의 프로그램이 중간에 광고 없이 연이어 방송되는 것. 일요일에는 <아빠를 부탁해>와 <런닝맨>이 <일요일이 좋다>로 방송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토요일 역시 SBS 예능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두 프로그램이 서로 밀고 끌며 시너지를 이뤄내 예능 왕국 SBS의 명성을 되찾을 날을 기대해본다.

첫 회부터 긴장감 백배! 포털 실검어 1위 <더 랠리스트> 국내 최초 드라이버 서바이벌 오디션으로 모터스포츠 붐업 기여한다



10월 17일(토) 밤 12시 15분에 첫 선을 보인 <더 랠리스트>(연출 박재연)가 방송 직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등극하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더 랠리스트>는 월드 랠리 챔피언십(WRC)에 출전할 드라이버를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모터스포츠와 오디션을 결합한 시도가 방송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지난 6월 마감한 지원자 모집에는 5천여 명이 몰려, 모터스포츠에 대한 국내 팬들의 갈증을 입증했다. 5천여 명 중 예선을 거친 21명이 본선에 진출했고, <더 랠리스트>는 최후의 1인을 뽑는 본선 과정을 중계한다.

237 대 1의 경쟁을 뚫고 올라와 한숨 돌릴 새도 없이, <더 랠리스트>는 1회부터 탈락자가 나왔다. 최초의 탈락자는 입소 6시간 만에 발생했고, 입소 첫날 밤 진행되는 미션에서는 여러 명의 탈락이 예고되는 등 빠른 진행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하였다.

‘초반부터 후덜덜하다’, ‘첫날부터 탈락자 속출도 예상 밖이다’, ‘전개도 스피디하고 군더더기 없어서 재미있다’, ‘너무 잔혹하지만 다음 주가 기대된다’는 등 네티즌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제작진은 “‘랠리’에 대한 진지한 접근과 냉혹한 경쟁으로 기존 오디션 프로그램과 차별화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자동차 수출국이며 모터스포츠 산업은 낙후돼 있다. <더 랠리스트>는 우리의 자동차 생산 기술력에 걸맞은 월드클래스 드라이버 육성을 목표로 한다. 또 F1 대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WRC를 국내에 소개하는 의미도 있다.

체계적인 서바이벌 미션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할 단 한 명의 랠리스트를 선발하는 <더 랠리스트>는 매주 토요일 밤 12시 15분에 방송된다.

좋은 정부란... “필요한 정책을 잘 만들고 집행하는 정부”

제13차 미래한국리포트 11월 4일(수)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개최



올해로 13번째를 맞는 SBS 미래한국리포트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을 놓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광복 70년, 좋은 정부의 조건 - 전환기를 넘어 착한 성장 사회로”라는 주제로 광복 이후 70년 동안 한국 사회의 변화 과정과 앞으로 직면하게 될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짚어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정부의 핵심 요소와 이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제도의 함정에 빠진 대한민국

그리스는 일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잠깐 넘었다가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2만 달러대로 추락했다. 일본은 4만 달러대를 넘어섰다가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3만 달러대에 20년 이상 머물고 있다. 한국은 지금 2~3%대의 저성장이 지속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있을까?

한 나라의 경쟁력은 정책과 제도, 자본, 문화 이 4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 그리스는 재산권과 법치, 부패, 관료의 질 같은 제도 변수가 비슷한 소득 수준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다는 공통점이 있다. 소득은 2만, 3만 달러대지만 제도 변수는 이보다 낮은 1만 달러대 나라들 수준이라는 것이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제도 수준이 낙후됐다는 것은 핸드 브레이크가 걸려 있다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는 자본 관련 변수인 엑셀러레이터를 강하게 밟더라도 차가 속력을 낼 수 없다. 연료는 많이 쓰면서도 차가 제대로 나가지 못한다. 한국이 이런 상황에 있다.

‘효율’에서 ‘역량’으로

한국은 짧은 시간에 성공적으로 고도성장을 이룬 나라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 접어들 때까지는 해도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국민들의 행복감도 높아졌다. 하지만 소득이 3배 가까이 늘어난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오히려 더 커졌다. 경제성장이 더 나은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박탈감이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전환기의 부작용을 해결해야 할 정부는 수평적 조정 경험의 부재와 지나친

-보도국 미래부 정형택 부처 이기주의, 단기적 성과 집착, 정책 형성 및 집행 과정의 불투명성, 정책의 지속성 부족 같은 과거 발전국가 모델에 갇혀 국가가 가야 할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효율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효율에서 역량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잘 만들어서 그 정책이 본래 의도했던 효과들을 얻어낼 수 있도록 자원을 동원하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 즉 정책역량을 가진 정부가 ‘좋은 정부’다. 이를 통해서만 지속가능한 ‘착한 성장’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좋은 정부의 조건은?

앞서 말했듯이 미래의 좋은 정부는 제도가 작동하는 토대 위에서 정책역량을 발휘하는 정부다. 따라서 전환기를 넘어 착한 성장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좋은 정부의 조건 발굴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SBS 미래부는 지난 1년 동안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공동으로 한국과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등 5개국에 대한 현장 취재와 비교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좋은 정부의 조건을 모색했다.

제13차 미래한국리포트는 11월 4일(수) 오전 8시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리며, SBS와 미래한국리포트 홈페이지(future.sbs.co.kr)를 통해 전국에 생방송된다. 참석을 원하는 사우는 미래부(#4244/E-mail:future@sbs.co.kr)로 연락하면 된다.

[발표 순서]

1. 전환기의 정부
2. ‘제도의 함정’을 넘어서
3. ‘효율’에서 ‘역량’으로
4. 좋은 정부의 조건
5. 역량 있는 정부를 위한 제언



SBS 정호선 기자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장덕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

SBS 신동욱 앵커

사우들과 함께 하는 SBS 대축제 ‘2015 SAF’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콘텐츠사업팀 박재용 차장(SAF 연출)

2014년 방송사 최초로 열린 연말 시상식축제 SBS Awards Festival(이하 SAF)의 성공적 개최에 힘입어 2015 SAF의 준비가 한창입니다.

SAF는 늘 TV로만 방송 프로그램을 접하던 시청자들이 방송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이자, SBS 가족들에게는 우리가 만든 올해의 프로그램들을 돌아보고 축하하는 연말 파티인 셈입니다. 즉 단순한 시상식을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 한마당으로 넓힌 개념이지요.

‘한국 방송 최초의 방송 콘텐츠 페스티벌’이라는 자부심으로 시작한 지난해에는 첫 회임에도 불구하고 5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렸습니다. 방문객들은 유재석이 <런닝맨>에서 입었던 점퍼를 입고 이름표 떼기 게임을 해보고, <별에서 온 그대> 도민준의 집 거실에서 김수현과 함께 사진 찍기, <TV동물농장> 세트에서 동물퀴즈 대결, 라디오부스에서 DJ의 방송멘트를 직접 녹음해 파일에 담아가는 등의 갖가지 체험을 통해 SBS를 직접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앙 스페셜무대에서는 가수들의 축하공연, 프로그램 MC들의 무대인사, <웃찾사> 공연, 라디오 공개방송, 슈퍼모델 패션쇼와 K-POP스타 도전 등 볼거리가 설 새 없이 펼쳐져 관람객들에게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남녀노소와 각국의 외국인들까지, 이들이 돌아가 SBS 프로그램을 다시 볼 때 느끼는 친근함은 아마 전보다 몇 배 커졌을 겁니다. 현장에서 찍었던 프로그램 부스 사진들은 지금도 SNS를 통해 전 세계에 퍼지고 있을 거고요.

올해도 강남의 중심 코엑스에서 12월 25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올해 작년보다 더욱 알찬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차세대 콘텐츠 TF팀과 협업으로 VR(가상현실) 콘텐츠 등 첨단 영상물들을 선보입니다. 관람객도 작년의 두 배인 1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고, 중국 SOHU TV를 통해 페스티벌의 전 과정이 중국에 인터넷으로 방송됩니다. 그리고 사업적 측면도 고려하여 회사경영에도 보탬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SAF사무국뿐만 아니라 모든 사우들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협찬 유치를 위해 힘쓰는 제작운영팀을 비롯해서 제작리소스팀, 시상식 PD들, 광고, PR, 편성, 기술, 계열사 식구들까지 거의 SBS그룹 전 사우들과 직·간접적 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D-60일을 목전에 둔 시점에 사우 여러분들과 또 한 번 즐거운 축제 한마당을 벌여보려 합니다. 회사 1층 로비에 전시된 작년 SAF 구조물들을 보면서 가만 가만히 귀 기울여 보시면 축제를 알리는 북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디어 급구>

대상: SBS 사우 여러분

내용: 한 해를 마감하는 방송 축제 <2015 SBS 어워즈 페스티벌>에서는 전시, 체험, 이벤트 등 SBS 프로그램과 관련된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 예) ① <정글의 법칙>에서 먹었던 애벌레를 직접 시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② <용팔이>의 최첨단 병원세트를 구현해 보는 건 어떨까요?
 김태희는 홀로그램을 이용해 세트 안에 있는 느낌으로~
 ③ 쿡방 전성시대인 만큼 쿡킹존을 만들어 셰프들의 요리와 참가자들의 먹방을 보고 싶습니다.

기한: 11월 6일(금) 마감

제출 방법: 2015sbssai@naver.com (사진이나 동영상 첨부도 가능)

상금: 1등(상품권 50만원), 2등(상품권 30만원), 3등(상품권 20만원)

※ 사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인프라관리팀 원충호 부국장, 광고팀 백광제 차장 정년



인프라관리팀 원충호 부국장

광고팀 백광제 차장대우

2015년 10월, 인프라관리팀 원충호 부국장과 광고팀 백광제 차장대우가 정년 퇴임한다. 1992년 입사한 원충호 부국장은 방송시스템 설계 및 구축 분야의 전문가였다. 1993년 관악산 송신소 및 무인 중계소를 설계 시공하였고, 일산 제작센터와 등촌동 공개홀의 방송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사옥건설단에서 일하면서 목동 신사옥 방송시설을 설계 구축하기도 했다. 기술팀을 맡게 된 2006년부터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2010 남아공 월드컵 등 SBS 단독방송의 기술기획을 진두지휘하여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퇴직 후에는 강원대학교 방송미디어 학과 교수로서 후학 양성에 힘을 예정이다.

백광제 차장은 1991년 입사한 이후 24년 동안 광고편집 및 운영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아왔다. 자상하면서도 치밀한 성격으로 부서 화합을 주도하는 한편, 후배들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해 왔다. 특히 과거 TAPE 기반 아날로그 방식으로 운영되던 CM 편집·운영 업무에 CM 스토리지와 KODEX, CM EXPRESS 등의 파일 기반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CM을 편집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SBS 플러스

〈강호대결 중화대반점〉 4대 중식의 전설 한자리에



10월 17일(토) 〈강호대결 중화대반점〉이 첫 방송되었다. 〈강호대결 중화대반점〉은 이연복, 여경래, 유방녕, 진생용 등 4대 문파의 중식 전설들이 모여 최고를 가리는 프로그램으로, 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만으로도 방송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첫 방송에서 이들은 명성에 걸맞게 4인 4색의 개성이 빛난 필살기 요리를 선보이며 시식단과 패널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황금비율의 신 이연복, 바람의 칼잡이 여경래, 전설의 불판장 유방녕, 플레이팅의 고수 진생용. 사실 이들은 한국 중식을 부활시키겠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방송 출연을 결심했다.

우리가 아는 중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한다. 진정한 중식을 알리기 위해 중식요리의 뿌리라고 하는 4대 문파의 전설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강호대결 중화대반점〉은 중식의 깊은 맛과 매력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매주 토요일 밤 11시, SBS플러스에서 방송된다.

외부기고

기업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힘은 구성원 간의 소통

소통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경청하며, 배려하는 일에서 시작돼

-마이다스아이티 이형우 대표



이형우 대표가 설립한 마이다스아이티는 공학기술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하는 회사로, 2014년 기준 국내 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마이다스아이티를 가장 들어가고 싶어 하는 기업 중의 하나로 꼽는 이유는 규모 때문만은 아니다. 마이다스아이티는 '자연주의 인본경영'을 바탕으로 사람을 수단인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며, 구성원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경영의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삶의 대부분을 타인과 소통하며 보낸다.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사회적 본성 중 하나다. 소통은 집단 구성원 간의 결속과 타 집단과의 연대를 강화해 집단 시너지를 창출하는 기반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직에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집단과 집단, 집단과 구성원, 구성원과 구성원 간의 갈등은 대개 소통의 오류에서 발생한다.

조직경영에서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모든 구성원이 목적과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만의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목적과 가치를 공유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는 안 된다. 타인에게 호의를 베풀수록, 타인과 특징을 많이 공유할수록, 먼저 타인의 요구를 들어줄수록 소통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러한 태도의 밑바탕에는 신뢰가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며, 요구도 들어주지 않는다. 따라서 소통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에 필요한 세 가지 요건으로 에토스(ethos), 파토스(pathos), 로고스(logos)를 들었다. 에토스는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나 신뢰를 의미한다. 또 파토스는 정서적 호소를 의미하며, 로고스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논리를 뜻한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적용하면, 신뢰를 바탕으로 정서적 공감을 형성할 때에만 논리적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신뢰, 정서, 논리 중에서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요소는 신뢰다.

마이다스아이티는 구성원들이 회사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할에 몰

입하여 성취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한 첫 단계는 구성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같은 마음, 같은 목적, 같은 목표를 가슴에 품도록 하는 것이다. 마이다스아이티는 직급별, 부서별로 CEO와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을 가진다. 이 시간은 기업의 핵심가치와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필요할 경우 전사 설명회를 열어 구성원들과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분기별 성과와 향후 계획을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매 분기마다 전사 경영회도 실시한다. 경영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이벤트와 구성원들에게 공개할 경영정보들은 구성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발표하도록 한다. 회사의 경영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구성원들이 회사를 신뢰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 자리를 갖는 것이다.

조직체계 측면에서는 '기획→관리→실행'으로 접점을 3단계로 단순화한 'Cell 조직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조직의 세포 역할을 하는 'Cell'은 5명 이하로 구성된 소규모 실행 조직이다. 소통의 문제는 항상 접점에서 발생한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정보의 정확도는 떨어지고, 열정도 희미해진다. 따라서 조직 소통의 핵심은 접점에서 발생하는 누수나 유실을 최소화하는 데 달려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 간 접점을 최소화하고, 각 조직과 구성원의 역할을 분명하게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통 과정에서는 리더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이다스아이티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 보고와 결재 시간을 1:1 코칭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때 리더는 직책이나 직급을 버리고, 팔로워와 구성원 대 구성원으로 만나야 한다. 신입사원들도 예외가 아니다. 신입사원이 CEO에게 직접 보고하고 코칭을 받는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다. 신입사원들은 다른 팀의 CEO보고가 있을 시 사전에 참가를 신청하여 회의 전 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바람직한 소통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 밑바탕이 될 때 가능해진다. 존중 받고 싶은 욕망이 인간의 본성이며, 상대의 마음을 여는 기본열쇠이기 때문이다.

소통의 목적은 서로 행복을 교환하는 데 있다. 행복은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행복감은 누군가를 통해, 누군가와 함께함으로써, 또 누군가와 함께 이룸으로써 가능하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은 소통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결국 서로의 이익과 행복을 보장해주는 이익양해각서인 셈이다. 존중은 신뢰를 만들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은 조직시너지를 극대화한다.

우리 프로그램은요~

지친 하루를 달래주는 단비 같은 프로 <송경희의 스위트 뮤직박스>



러브FM(수도권 103.5MHz)
월~금 오후 08:30-10:00

미디어의 홍수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는 하루에도 정말 많은 매체들을 만나고 있다. 우리가 몸 바쳐 일하고 있는 공중파는 이제 너무 낡은 매체라고 외면당하는 게 아닐까하는 걱정이 들 정도로 케이블, 종편, 팟 캐스트, 각

종 다양한 1인 방송 매체들까지,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여러 가지 종류의 음악, 정보, 사연들이 빠르게 넘쳐나는 것이 작곡의 현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 낡은 방식이 아니냐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만큼 라디오의 정석에 충실한 전형적인 BGM 프로그램이 바로 <송경희의 스위트 뮤직박스>다. 넘치는 음악, 하지만 최소한의 필요한 멘트들만 꾸며지는, 아주 천천히 걸어가는 감성적인 방송. 이것이 밤 시간을 물들이는 <스위트 뮤직박스>의 모습이다.

<스위트 뮤직박스>는 라디오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SBS 라디오의 간판 프로그램이다. 가요를 주로 방송하던 이전과는 달리 지금은 올드팝 프로그램으로 모습을 바꾸어 돌아왔지만, 듣는 이들의 지친 하루를 달래주는 단비 같은 방송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이곳에는 억지로 웃음을 만들려는 자극적인 멘트도 없고, 지나치

게 긴 설명들도 없다. 단지 청취자들이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에 때로는 힘들어 하고, 때로는 사랑하며, 때로는 소망하며, 때로는 원망도 쏟아내는 진솔한 청취자들의 마음과, 그것을 위로 혹은 축하하는 따뜻한 진심과 좋은 음악들이 있을 뿐이다.

<스위트 뮤직박스>가 그저 그런 BGM 방송으로 머물지 않도록 하는 또 하나의 특징은 프로듀서가 직접 진행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BGM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음악'의 흐름을 원하는 방향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선곡된 음악을 청취자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위트 뮤직박스>는 음악 프로그램으로서의 또 하나의 개성을 얻는다. 100% 생방송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살려 그날 하루의 여러 가지 이슈(날씨, 시사, 정보 등)와 연관 있는 노래를 골라 선곡의 배경, 그리고 그 음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인 'Song PD의 선택'은 프로듀서가 직접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색깔이 묻어나는 대표적인 코너이다. 경쟁이라도 붙은 것처럼 정신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지나가버린 나의 20대, 30대가 그리워질 때, 그 청춘의 시절을 되새기며 잠시 쉬고 싶다면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자. 사랑하는 친구들, 선배들과 MT를 떠나 누군가의 기타연주를 배경삼아, 롤링페이퍼를 돌리며 진심과 기억을 나누던 그런 시절에 대한 상상. 그 따뜻한 상상 속에서 미소를 짓고 싶다면 그것은 당신도 지금 <송경희의 스위트 뮤직박스>와 함께 "달!콤!개!죽!"이 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다.

-연출 및 진행 송경희 차장 (라디오센터 라디오1CP 소속)

공연 전시

<간송문화전 5부 화훼영모>

미술사 전공한 김지연 아나운서, 특별 도슨트로 참여



'제1부 간송 전형필'을 시작으로 2014년 3월 21일부터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고 있는 간송문화전이 10월 23일 5부 전시를 시작한다. '간송문화-5부 화훼영모'전은 고려 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500여 년 동안 당대를 대표할만한 화가들이 동식물을 소재로 그려낸 작품을 전시한다.

화(花)는 꽃이고, 휘(卉)는 풀이며, 영(翎)은 새의 깃털이고, 모(毛)는 짐승의 털이다. 꽃과 나비, 새, 짐승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화가들이 즐겨 그려왔던 그림의 소재다. 화훼영모의 사생(寫生)화풍은 윤두서와 정선에서 시작돼 변상벽과 심사정을 거쳐 김홍도에 이르러서야 화려하고 아름답게 피어났다. 김홍도는 대상에 대한 과도한 집중과 묘사를 피하고 화훼영모 자체보다 그것이 놓인 정경의 분위기와 느낌이 주는 정취를 포착해 냈다. 우리 문화가 화려하게 꽃피었던 조선 후기 진경(眞景)시대의 '화훼영모'는 예술적으로 가장 뛰어났을 뿐 아니라 당시 인간들의 풍부한 정서를 반영하고 그림의 다양한 형상을 보여줬던 소재였다.

이번 전시에는 공민왕, 이징, 윤두서, 정선, 변상벽, 김홍도, 신윤복, 장승업 등의 작품 80여 점이 전시된다. 단원 김홍도의 '황묘농집'(노란 고양이가 나비를 놀리다), '하화청정'(연꽃과 고추잠자리)을 비롯해 겸재 정선의 '서과투서'(수박과 도둑쥐), 신사임당의 '귀비호집'(향기는 멀리 갈수록 더 맑아진다), 현재 심사정의 '어악영일'(물고기가 뛰어 해를 맞이하다), 화재 변상벽의 '자웅장추'(암수닭이 병아리를 거느리다)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한편, 이번 전시에서는 <SBS컬처클럽>의 진행자이자, 대학원에서 미술사학을 전공한 김지연 아나운서가 특별 도슨트로 활약한다. 김지연 아나운서는 "관람객들이 우리 미술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 미술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잠깐 힐링의 시간을 갖는다는 기분으로 오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지연 아나운서의 특별 도슨트 프로그램은 11월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6일, 13일, 20일, 27일) 저녁 7시에 시작해 60분 동안 진행된다. 관람 후에는 김지연 아나운서와 따뜻한 차 한 잔을 함께하며 우리 옛 그림에 담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11월 26일(목)까지 인터파크 티켓에매 홈페이지에서 응모할 수 있다.

국내 최초 애니와 웹툰 소개 프로 <접속! 애니월드> 탄생

인기 웹툰 작가 김풍, 제대로 전공 살려 메인 진행 맡아



10월 30일(금) 애니메이션과 웹툰 정보 프로그램 <접속! 애니월드>가 탄생한다. 애니메이션과 웹툰은 대중문화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핵심 장르로, 21세기 고부가 가치 산업의 주역이기도 하다. <접속! 애니월드>는 애니메이션의 매력을 탐구하는 것은 물론,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활약상을 신속하게 전달한다. 또 젊은 층에 가장 핫한 장르로 자리 잡은 한국만화 웹툰도 다룬다.

진행은 요즘 예능계의 블루칩 김풍이 맡았다. 김풍은 요리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졌으나, 사실 대학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한 10년차 웹툰 작가이다. 짜질한 남자의 일상을 리얼하게 그려낸 인기 웹툰 <짜질의 역사>가 대표작이다. 김풍은 "단순한 전달자를 넘어 제작진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 가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김풍과 함께 아나운서 김진재, 인기 팟 캐스터 김창후가 호흡을 맞춘다. 김창후는 플래시 애니메이션 창작집단 '오인용'의 멤버이자 애니메이션 덕후들을 위한 현정 방송 '후라이'를 진행하고 있다.

<접속! 애니월드>에는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코너들이 포진하고 있다. 호기심과 궁금증을 재밌는 실험코드로 밝혀내는 '애니 탐구생활',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들을 독특한 시선으로 재해석하는 '누구나 넌', 김풍과 인기 웹툰 작가들의 뒷담화 토크쇼 '풍문으로 들었소', 하나의 테마를 정해서 국내외 애니메이션들의 랭킹을 매기는 '못 말리는 애니킹' 등 매주 개성 있고 재미있는 코너들로 시청자의 시선과 관심을 끌어 모은다.

<접속! 애니월드>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60분 동안 방송된다.

25 SBS 25 YEARS 1990-2015 SNS이벤트

동료들과의 인증샷을 올려라!!

자신의 인스타그램, 트위터에 #SBS창사25주년 업로드
•1등_300만원 •2등_200만원 •3등_100만원

